

#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태도-행동 관계에서 가계변인의 조정적 역할

주 문 자(충남대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강사)

황 덕 순(전남대 가정관리학과 교수)

## 1. 서론

### 1. 문제제기

우리 나라의 교육문화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독특한 형태로 정착되었으며 사교육비 지출이라는 경제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과거부터 교육을 중요시하는 우리 나라의 사회풍토와 학벌중심의 조직사회의 발달은 지속적인 사회 전반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가 자녀 교육비에 기꺼이 투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자녀의 소수 출산은 경제력을 무시한 무조건적인 교육비 지출을 부추기고 있다.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인적자본의 질 자체를 높이려는 시도이며 주어진 인적자본의 가치를 보다 높게 평가받기 위한 행위라는 인적자본론(Schultz, 1961)에 근거하여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대학입시 제도와 새로운 대학입시안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 및 재능과 적성을 살리려는 취지하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학생이나 학부모로 하여금 학원과 과외에 대한 의존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그 행동 결과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때 자발적 성격을 띠게 되는데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행동은 눈에 보이는 경제상태 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특별한 행동이다. 우리 나라 사교육비 지출행동 연구는 사교육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하여 행동의 근간이 되는 태도와 같은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행동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예측이 가능하다.

태도와 같이 행동의 경향성과 관련된 개념들은 인간의 행동 예측과 설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Ajzen, 1991), 경제적 행동의 심리학적 연구에 적용될 수 있다(Fishbein & Ajzen, 1975). 태도는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행사하며, 한번 형성되면 변화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Engel,

Blackwell & Miniard, 1995) 때문에 태도 연구는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개인의 태도는 행동을 예측한다(Bagozzi, Tybout, Craig & Sternthal, 1979b)는 가정하에서 활발히 연구되었다.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려는 모델개발의 시도는 처음으로 사회심리학에서 개발된 영역이었으나, 그 후 다양한 응용학문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내부세계에 대한 연구는 필요에 의해 더욱 확장·발달되었다. 태도 조사 연구는 시장세분화, 광고평가 등의 분석을 위해 마케팅에서 널리 연구(Barnard & Ehrenberg, 1990)된 반면,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학에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태도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행동은 각 가정의 모든 자녀가 교육을 받고 있다는 특성과 대부분의 가계는 소비자로서 사교육이라는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특성, 그리고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빈번한 대학 입시 정책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의 특성으로 볼 때, 가정학에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고 예측될 수 있는 행동이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태도-행동 관계에서 가계변인의 조정적 역할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사교육비 지출행동의 기본적인 변인이 되는 가계관련 변인이 실제 태도-행동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조정역할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이는 기존의 사교육 관련 행동에서 접근한 방법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접근으로서 사교육비 지출행동에서 나타나는 구조에 대한 이해와 사교육비 지출행동에 대한 실증적 해석에 다양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업이나 국가의 교육관련 정책과 사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현재의 사교육비 폐해로 인한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II. 이론적 배경과 연구문제

### 태도-행동 관계에서 가계변인의 조정적 역할

개인의 지출행동은 사회계층의 영향을 받으며 사회계층은 소비에 영향을 준다(Toivonen, 1990). 남녀를 막론하고 학령기인 6-17세 사이의 자녀수가 늘수록 인적자본 증진을 위한 지출을 많이(이윤금, 1997)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자녀가 많을수록 정규학교나 기타 개인교습에 대한 가계의 지출이 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상의 연구는 소득집단에 따른 지출형태의 차이를 보고하여 사교육비 지출 연구에 있어서 사회계층변인의 중요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태도와 행동의 개념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조작하는데 실패해왔다고 보는 학자들(Zanna, Olson & Fazio, 1980; Fazio & Zanna, 1981; Sharma, Durand & Gur-Arie, 1981; Fazio, 1990; Berger & Mitchell, 1989)은 태도-행동 관계를 조정변인의 관점으로 1980년대 이래로 성공적으로 활발하게 접근해 왔다. 지금까지의 태도는 행동예측에 뛰어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그들은 조정변인의 역할로 태도와 행동의 일치 정도의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조정변인은 예측변인과 결과변인간의 관계의 세기 또는 형성을 체계적으로 수정하는 변인으로 정의되어 왔다. Sharma 등(1981)은 예측변인과 결과변인으로 되어 있는 소비자 행동모델이 현상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제공해 주지 못했으며 다른 변인들의 기능으로 어떤 관계가 체계적으로 변할 수 있는 현상으로 인하여 조정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Zanna 등(1980), Fazio 등(1981), Fazio(1990) 연구는 태도-행동 일치에 있어서 그 관계를 높이는 변인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어떻게 태도-행동 일치성은 높아지는가 또는 언제 태도는 행동을 예측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조정변인의 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상황요인과 개성변인 등이 태도-행동 관계를 조정한다(Fazio, 1990: 76).

태도-행동 관계에 영향을 주는 조정변인들은 개인차 변인, 개성 변인, 상황 변인 등으로서 다양한 변수들이 태도-행동 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되어 왔으며 구체적인 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Teas 등(1986)의 개인차 변인은 Fazio 등(1981), Zanna 등(1980) 및 Fazio(1990) 연구 등이 개인차 변인으로 간주한 변인들과 다른 것으로서 개인차 변인의 다양한 연구와 해석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Zanna 등(1980)은 태도-행동 관계에서 개인차 접근을 하여 개인차변인으로 자기감시성과 과거경험을 들어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 태도는 미래 행동에 대해 보다 예측적이라고 보고 있다. Davidson과 Jaccard(1979: 1366)는 교육수준을 태도-행동 관계의 조정변인으로 간주하였으나 조정적 역할은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Wilson, Dunn, Kraft와 Lisle(1989)에 의하면 태도-행동 관계에서 조정역할을 하는 변인은 '어떤 느낌을 갖게된 이유에 대해 사고하는 것'으로서 이는 태도-행동 일치성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규범과 같은 환경변인(Fazio, 1990: 103)도 태도-행동 관계의 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조정변인이다. 태도를 대상에 대한 신념과 평가로 보는 Fishbein적 시각은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더 태도-행동 일치가 되기 쉽다고 본다. 일관적 또는 합리적으로 정의되는 수단적 가치인 논리는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에 의하면, 학자들의 조정변인에 대한 연구는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있어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 태도-행동 관계에서 가계변인의 조정적 역할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태도-행동 관계에서 월평균 가계소득의 조정적 역할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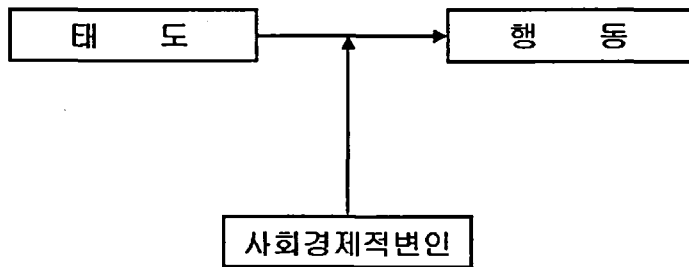
연구문제 1-2: 태도-행동 관계에서 월평균 가계지출의 조정적 역할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3: 태도-행동 관계에서 사교육비 부담감의 조정적 역할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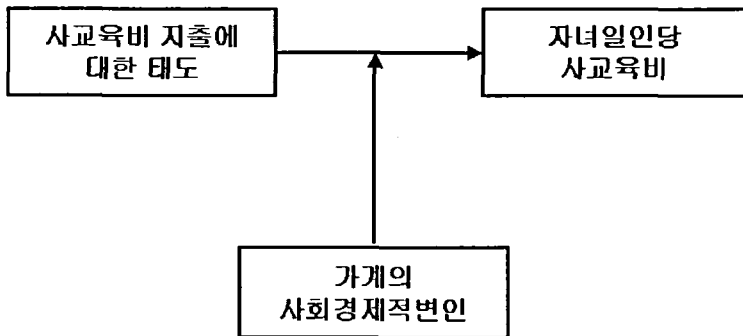
연구문제 1-4: 태도-행동 관계에서 부부의 교육수준의 조정적 역할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5: 태도-행동 관계에서 주부의 나이의 조정적 역할은 어떠한가?

### III. 연구모형



[그림 1] 이론적 개념틀(theoretical framework)



[그림 2] 연구모형

### IV. 연구 방법

#### 1. 자료수집과 조사 대상

전국 4개 도시(광명시, 대전, 부산, 광주)에 거주하며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주부를 조사 대상으로 2000년 3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8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녀에게 과외 또는 학원에 보내는 가구의 설문지 509부가 최종 자료로 사용되었다.

## 2. 용어의 정의 및 측정

### 1) 사교육비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비 및 과외비로 한달에 지출하는 금액이다. 자녀 일인당 사교육비는 가구당 사교육비를 사교육행동의 주요 변수인 자녀수로 나눈 값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사교육비 지출행동은 자녀일인에게 지출되는 월평균 사교육비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으며 행동의 강도를 나타내는 의미로서 사용되었다.

### 2) 태도

태도란 어떤 행동에 대해서 갖는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반응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대상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대한 태도의 구분의 중요성(Fishbein 외, 1975; Fishbein 외, 1995; 1997)에 따라 사교육비에 대한 태도가 아닌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지출 행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로 명확히 서술하여 질문하였다. 사교육비 지출 행동에 가장 적합한 언어를 사용한 7점 리커트 형식의 6문항으로 제작하였다. 태도의 신뢰도 계수는 .83으로 나타났다.

### 3) 가계변인

본 연구에서는 월평균 가계소득, 월평균 가계지출, 월평균 가계부채, 사교육비 부담감, 부부의 교육수준, 주부의 나이를 가계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가계변인은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변인들로서 정영숙(1998), Wellen 등(1990), Marlowe 등(1988), Toivonen(1990), Schumann 등(1994)의 연구를 참고하여 가족의 인적특성과 재정적특성이 반영되어 구성되었다. 인적인 특성으로서 부부의 교육수준, 주부의 나이 등을 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사교육행동이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측면과 실제적으로 관련된 특성을 가진 행동이므로 재정적 특성으로서 월평균 가계소득, 월평균 가계지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감을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 3. 자료분석기법

SAS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 퍼센트를 산출하였다. 측정의 내적일치도 검사를 위해 Cronbach alpha를 산출하여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가계변인이 태도-행동에 미치는 조정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조정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V. 결과 분석

### 1. 태도-행동 관계에서 가계소득의 조정적 역할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Bagozzi 등(1992)이 변인의 조정역할 분석에 이용한 조정회귀분석(moderated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여 태도-행동 관계에서 가계변인들의 조정역할을 분석하였다.

<표 3>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text{자녀일인당사교육비} = \beta_0 + \beta_1\text{태도} + \beta_2\text{월평균가계소득} + \beta_3(\text{태도} \times \text{월평균가계소득}) \quad (1)$$

태도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 -.10$ ,  $t = -1.17$ )는 유의한 추정치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태도×월평균 가계소득의 회귀계수( $\beta = .81$ ,  $t = 3.57$ )는 정적인 유의한 추정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월평균 가계소득은 태도가 자녀일인당 사교육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조정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표 3> 태도-행동 관계에서 월평균 가계소득의 조정역할 분석

변 인	$\beta$	t-value	F	Adj R-sq
태 도	-.10	-1.17		
월평균 가계소득	-.73**	-2.69	19.3***	.10
태도×월평균 가계소득	.81***	3.57		

\*\* p < .01 \*\*\* p < .001

## 2. 태도-행동 관계에서 가계지출의 조정적 역할

<표 4>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text{자녀일인당사교육비} = \beta_0 + \beta_1\text{태도} + \beta_2\text{월평균가계지출} + \beta_3(\text{태도} \times \text{월평균가계지출}) \quad (2)$$

태도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 -.04$ ,  $t = -.52$ )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태도×월평균 가계지출의 회귀계수( $\beta = .64$ ,  $t = 3.10$ )는 정적인 유의한 추정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월평균 가계지출은 태도가 자녀일인당 사교육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조정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 표 4 > 태도-행동 관계에서 월평균 가계지출의 조정역할

변 인	$\beta$	t-value	F	Adj R-sq
태 도	-.04	-.52		
월평균 가계지출	-.33	-1.76	19.7***	.11
태도×월평균 가계지출	.64**	3.10		

\*\* p < .01 \*\*\* p < .001

## 3. 태도-행동 관계에서 사교육비 부담감의 조정적 역할

<표 5>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text{자녀일인당사교육비} = \beta_0 + \beta_1\text{태도} + \beta_2\text{사교육비 부담감} + \beta_3(\text{태도} \times \text{사교육비 부담감}) \quad (3)$$

태도 ( $\beta = .51, t = 4.32$ ), 사교육비 부담감 ( $\beta = .59, t = 2.59$ )의 태도에 대한 회귀계수는 정적인 유의한 추정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사교육비 부담감의 회귀계수 ( $\beta = -.77, t = -3.10$ )는 부적인 유의한 추정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교육비 부담감은 태도가 자녀일인당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조정변인으로 나타났다.

<표 5> 태도-행동 관계에서 사교육비 부담감의 조정역할 분석

변 인	$\beta$	t-value	F	Adj R-sq
태 도	.51**	4.32		
사교육비 부담감	.59**	2.59	10.7***	.06
태도×사교육비 부담감	-.77***	-3.10		

\*\* p < .01 \*\*\* p < .001

#### 4. 태도-행동 관계에서 부부 교육수준의 조정적 역할

<표 6>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text{자녀일인당사교육비} = \beta_0 + \beta_1\text{태도} + \beta_2\text{부부의교육수준} + \beta_3(\text{태도} \times \text{부부의교육수준}) \quad (4)$$

태도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 $\beta = -.32, t = -1.82$ )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태도×부부의 교육수준의 회귀계수 ( $\beta = .87, t = 2.69$ )는 정적인 유의한 추정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부부의 교육수준은 태도가 자녀일인당 사교육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조정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태도-행동 관계에서 조정변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Davidson 외(1979)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조정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Zanna 등(1980), Fazio 등(1981), Fazio (1990)의 연구를 확장한 결과로 보여진다.

<표 6> 태도-행동 관계에서 부부의 교육수준의 조정역할 분석

변 인	$\beta$	t-value	F	Adj R-sq
태 도	-.32	-1.82		
부부의 교육수준	-.40	-1.57	22.3***	.12
태도×부부의 교육수준	.87**	2.69		

\*\* p < .01 \*\*\* p < .001

#### 5. 태도-행동 관계에서 주부 나이의 조정적 역할

<표 7>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text{자녀일인당사교육비} = \beta_0 + \beta_1\text{태도} + \beta_2\text{주부의나이} + \beta_3(\text{태도} \times \text{주부의나이}) \quad (5)$$

태도( $\beta = .87, t = 1.68$ )와 태도×주부의 나이( $\beta = -.79, t = -1.35$ )에 대한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부의 나이는 태도가 자녀일인당 사교육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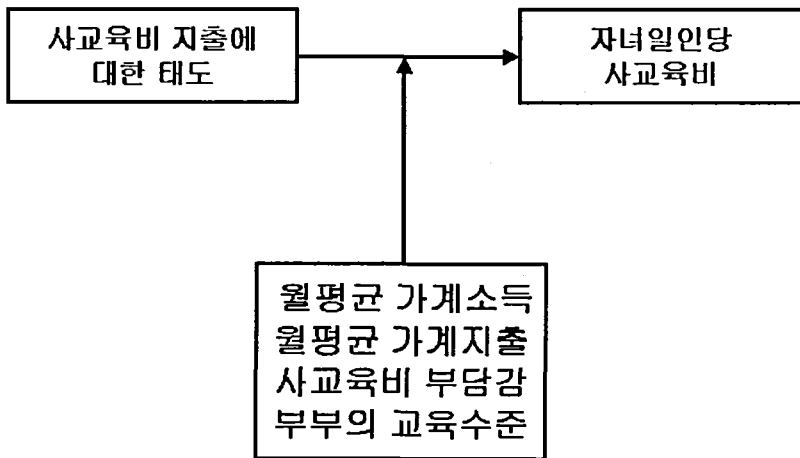
<표 7> 태도-행동 관계에서 주부나이의 조정역할 분석

변 인	$\beta$	t-value	F	Adj R-sq
태 도	.87	1.68		
주부의 나이	.24	0.84	9.8***	.05
태도×주부의 나이	-.79	-1.35		

\*\* p < .01 \*\*\* p < .001

이상의 회귀분석에 의하면 월평균 가계소득, 월평균 가계지출, 사교육비 부담감, 부부의 교육수준은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조정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3] 분석결과의 요약

[그림 3]은 분석결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월평균 가계소득, 월평균 가계지출, 사교육비 부담감 및 부부의 교육수준 등의 가계변인은 태도가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Ⅵ. 결론 및 제언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해 주부가 느끼는 태도가 자녀의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력은 월평균 가계소득, 월평균 가계지출, 사교육비로 인한 부담감 및 부모의 교육수준의 역할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사교육행동의 원인과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점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결과로 보여진다. 고학력을 지향하는 한국 사회의 풍토와 그러한 사회적 신념을 따르려는 개개인의 교육철학은 경제력이라는 수단을 통해 사교육 행동이라는 구체적인 경제행위를 창조하였다. 부모와 학생은 모두 고학력을 우대하고 학력과 소득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노동시장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미래 소득향상을 위해서 교육투자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교육행동은 가계의 소득을 통한 경제행위이기 때문에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하락시키고 저축률을 하락시키는 등 가계의 재무구조를 불건전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그의 파급효과가 국민경제로 미치게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건전한 투자행위만으로 볼 수 없는 특징이 있다. 사교육행동은 가정에서 출발하며 그로 인한 문제 또한 가정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부모의 잘못된 교육철학이 자녀에게 세습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 부모는 사교육행동을 통해 사회에 파급되는 영향을 숙지하고 건전한 투자행위로서 자녀를 위한 교육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개인의 교육철학이 건전하더라도 국가적 교육정책이 지지해주기 전에는 해결하기 힘들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가정을 교육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기본 단서로 보고 국민 개인의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교육투자 행위로서 사교육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고유한 가계관련 변인과 차단되어 있었던 기존의 태도형성의 흐름을 가계변인과 연결하여 설명했다는 점에서 사교육비 지출행동과 태도 연구에 기여하였다고 본다. 사교육비 지출행동은 가정이 주체가 되는 행동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에 의식있는 사교육행동에 도움이 되는 지향점을 제시하며, 국가의 교육정책에 기초자료와 현재의 사교육비 폐해로 인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